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소망을 품는 특별한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대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 1 - 감사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둘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비를 받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학교에서의 일들을 행통하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목회자님들의 섬김과 사역자들의 헌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주님의 손길 아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 2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11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쌓인 피로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집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다른 배경과 처지를 가진 우리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님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도 기쁨과 보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들을 붙잡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옵나이다. 아멘.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 3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가 그 땅의 백성 중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느니라” (에스겔 22:30)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맡겨드립니다. 70여 년 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게 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이 나라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당파의 이익보다는 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시옵소서. 부패와 불의가 뿌리 뽑히고, 진실과 투명성이 정치 현장에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평화통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자유와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을 멈추게 하시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간구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온 세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복음이 더욱 힘 있게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전체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 4 -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사랑의 하나님, 11월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요, 신앙 전수의 가장 중요한 터전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들과 진정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특별히 품어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거나 화목이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 5 -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만민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시옵소서. 11월 둘째 주일을 맞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나라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특히 선교사 자녀들(MK)의 교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지역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북한, 중동,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가는 형제자매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단기선교를 통해 직접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선교사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일상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민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터넷과 SNS를 통한 온라인 전도 사역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시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11월 둘째 주일 대표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감사와 소망,

그리고 사명감을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각각의 기도문이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기도문과 영적 자료를 원하신다면 [새문안교회 영상 자료] (<http://www.saemoonan.org/Board/ListTV.aspx?vodType=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